

복지시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로

전주시,내달 말까지 어린이집 470여곳에 보급 경로당 600여곳에도 실내 대기질 개선 위해 설치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담 등 총 24억7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2,800여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에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쉬며 살아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1000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선, 시는 국비 5억여원과 지방담 20%를 포함한 총 10억 9690만원을 투입, 설치를 희망한 어린이집 478개소에 총 2052대를 설치하고 이어, 경로당 603개소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으로는 실수요자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제품별 장단점을 직접 비교분석한 후 개별계약을 통한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입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내 공기청정기 공급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오는 5일 금요일 제품에 대한 공개 전시 설명회 및 개별 계약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전진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정책으로 도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면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영유아를 위한 쾌적한 보육환경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며 "구매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자율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기청정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소뜯작은도서관 '행복한 우리아파트 그림그리기' 열어

전주시 평화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에 위치한 미소뜯작은도서관이 지역 아동과 마을주민들의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난 3일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환경도서를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복한 우리아파트 그림그리기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소뜯작은도서관은 올해 '전주시 특화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녹색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우리집 애물단지 이웃집 보물헌신'이란 타이틀의 아나바다장터 개최 △지구 지키는 EM보급과 사용홍보 △책으로 만드는 환경이야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이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에는 지역아동들이 엄마와 함께 만든 EM 흙공 500여개를 15일 동안 발표시킨 후 인근 지시제 정화작용을 위해 투하했으며 150여명이 참여한 아나바다장터 수익금의 일부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희 미소뜯작은도서관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녹색마을 만들기 환경지킴이라는 자부심으로 미소할 작은도서관만의 초록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람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특화공모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광역투어버스 발대식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광역투어버스 발대식 및 시흥식이 4일 전주역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문화해설사 및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얼굴없는 천사' 를 아시나요?

전주 천사동 7곳 천년사랑 축제 성료

전주풍납초등학교에서 전주시역 7개 천사동(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진북동, 인후1·2·3동) 주민 등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비둘기농약단의 김늘이와 함께 천사기념비(노송동주민센터)에서 전주풍납초등학교까지 얼굴 없는 천사의 행진을 기리는 천사길 걷기로 행사가 시작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9월에 '얼굴없는

천사' 주제로 전주시내 각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으로 추천한 글·그림공모전 시상보고와 1004저금통 분양식, 개막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천사의 한술밥, 노래자랑 경연대회, 어울림더울림문화마당, 재능기부 공연, 놀이문화행사 등이 진행됐다.
중심으로 제공된 천사의 한술밥은 조직위에서 준비한 비빔밥 재료를 섞어 모두가 하나 되서 조화롭게 화합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1004명분의 '천사의 한술밥'도 마련돼 주민들

이 함께 천사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연출됐다.
부대행사로는 마을을 살리는 EM활성액 체험 부스, 7개 천사동별 12개 은두레 마을공동체 등이 참여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전시하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천사축제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등 나눔과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시민들도 얼굴 없는 천사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천사저금통 1004개를 분양받는 등 나눔과 기부 문화에 동참기로 약속했으며 이날 분양된 천사저금통은 오는 연말에 회수해 7개 천사동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승태 USB'에 영장 계속 퇴짜

사범 농단 수사 장기전

추가 의혹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수사 확대

'양승태 행정처' 사범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규명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양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할 것으로 주목받은 '양승태 USB'도 빈 강릉 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더해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은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반복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장시간이 지나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USB에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작성된 문건이 담겼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문건 내용과 삭제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USB 확보가 수사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점,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자신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큰 기대는 않는 분위기다. 애초 USB 문건에서 사범 농단 관련 문건이 나올 경우 보고 라인에 있는 고위 법관 등 상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의 반복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 초기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으면 보다 실효성 있

는 압수수색이 가능했을 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전직 대법관 상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역시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자료 확보 수단인 행정처 자료 임의 제출 역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료 제출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 인사 자료 등 필수적인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전과 크게 다른 협조를 받고 있는 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우회 전략을 취했고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수차례 기각됐던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전담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우회 전략 성과로 거론된다.
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혹 전반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그간 알려진 것 이외 추가 의혹이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수사가 확대, 의혹 전반에 대한 실제 규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현직 판사 다수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여전히 높은 문턱 등을 고려할 때 내내까지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전주시, 전국체전 대비 친절·위생 교육

전주시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없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4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숙박업 영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친절 위생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숙박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객실, 접객대, 욕실 등 청소 및

소독, 침구의 포와 수건은 1인 사용할 때마다 세탁, 환기용 창 수시로 개방, 주차장 및 건물 밖 환경 조성, 바가지요금 근절하기 위한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등을 교육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숙박 영업자에게 친절서비스와 향상된 위생수준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숙박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